



(02)

물질해염

물질하며
하늘로 건너가는
바다, 길

하늘로
건너가는

바당, 질

(03)

질 우이
시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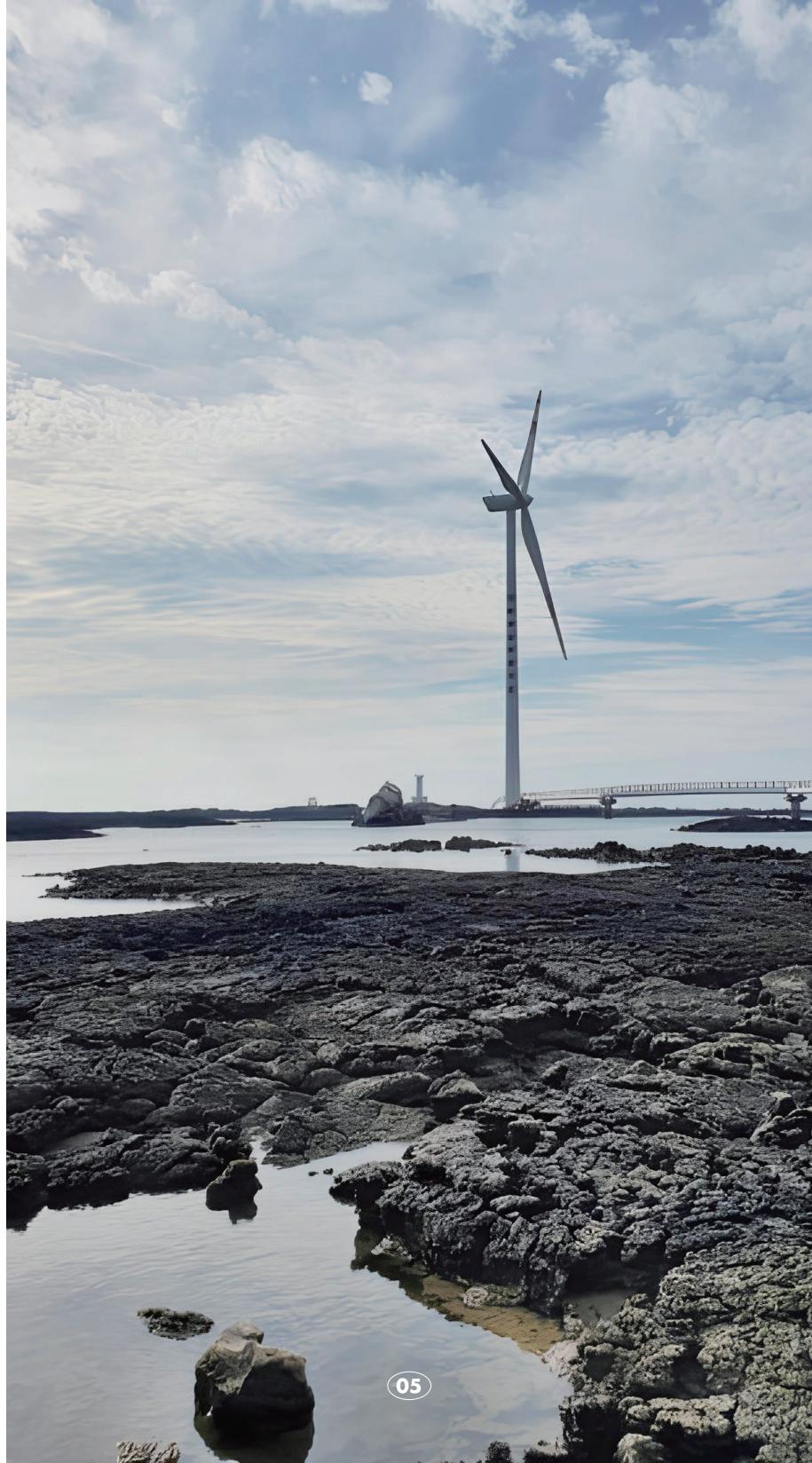
설렁설렁
들물 알로

길 위의 시름이
서서히 밀물 아래로
들어온다

들어온다



04



05

10년 침묵의 폐허에서 부활하는 예래단지,

↓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 활로를 찾은 예래단지
토지보상 70%가 완료됐다.



JDC의 새로운 도시개발 비전이 실현된다

2조5천억 원 규모의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였으나
토지 강제수용 문제로 좌초된
예래단지를 JDC가 ‘도시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재추진한다.
글로벌 워케이션과 문화·예술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재탄생할 예래단지의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살펴본다.

좌초된 꿈, 10년의 기다림

세계적 수준의 휴양형 주거단지를 꿈꾸며 2005년 시작된
예래단지 사업은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 프로젝트였다.
말레이시아 벼자야 그룹이 2조5천억 원을 투자해 74만여
㎡ 부지에 고급 주택과 호텔, 의료·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7년 토지
강제수용 과정에서 불거진 반발로 법적 분쟁이 시작됐고,
2015년 대법원이 “사업 인가 처분과 토지수용 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짓다 만
고급 주택 140여 채만이 10년 넘게 폐허로 남았다. 제주의
청정 자연 속에 미완성으로 남겨진 이 공간은 개발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과 지역사회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안타까운 교훈으로 남았다.

↓
2023년 개소한
예래단지 보상사무실
앞으로는 용도 지역
설정이 관건이다.



JDC는 절치부심한 끝에 10년의 침묵을 깨고 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JDC는 기존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을 모색하며 사업 재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역 상생,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재도약

JDC는 예래단지 재추진을 위해 기존 ‘유원지’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 방식으로 사업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새로운 계획은 주거공간뿐 아니라 글로벌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시설과 문화·예술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관광 트렌드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반영한 것으로,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현재 JDC는 사업 재개의 선결 조건인 토지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754억 원의 추가 보상금을 투입해 토지 매수를 진행 중이며, 현재 보상률은 면적 기준 69.2 %, 금액 기준 75.0%에 이른다. 토지 확보 후에는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5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용도지역 설정과

Between Mount Halla and the River Thames, Learning Knows No Borders

Beginning his second term in August 2024, NLCS Jeju Headmaster James Monaghan has successfully planted the spirit of British prestigious education in Jeju's soil. Pointing to the landscape painting of Mount Halla hanging by the window beyond his desk, he remarks, "This island's energy nurtures globally competitive talent."

Education: As Free as Jeju's Winds, As Steadfast as Mount Halla

Dr. James Monaghan Headmaster of NLCS Jeju

A Cambridge University PhD in Education and pioneer of the 'Glocal Education Model.' During his tenure, he made history with 90% of graduates securing admissions to world-leading universities. Author of the bestseller "Crossing Cultural Boundaries in Education" and recipient of the 2023 Asian International Education Leadership Award.



“Our students see Jeju through an international lens,

and interpret the world through Jeju’s sensibility”

What unique values have you discovered in this journey where British education meets Jeju’s spirit, now evolving?

Each morning, I still greet Mount Halla through my window—what began as foreign terrain has become my wellspring of inspiration. Now, we’re blending 160 years of British educational heritage with Cognita’s expertise from operating over 100 schools worldwide, creating something magnificently unique in Jeju’s volcanic soil.

Some voiced concerns about the acquisition, but we’re keeping our brand, curriculum, and faculty intact while gaining access to a powerful global network. The delicate dance between global.

How do you envision the 2025 Global Community Center and Cognita’s network creating new possibilities for collaboration with Jeju’s public education system?

The synergy between these two developments is extraordinary. The Global Community Center provides the physical space while Cognita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400년 미술사를 담은 143점의 캔버스가 제주에 내려앉았다.

모네부터 워홀까지, 시대를 초월한 거장들의 숨결이 섬의 봄기운과 어우러진

특별전이 열렸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일일 최다 1,363명을 포함해 역대
최다 관람객을 기록하며 세계 예술의 새 좌표를 찍었다.



**143점의 명작이 펼친
서양미술 400년**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monet to warhol

2024. 11. 26. – 2025. 03. 30.

서양미술 400년, 2024 제4회 명화로 읽다
제주 현대미술관 입역 전시

제주현대미술관

한 장의 티켓으로 만난
미술 거장들의 향연

요하네스버그 아트 갤러리 소장품들의 이번 한국 특별
순회전은 제주 상륙과 함께 섬의 문화지도를 다시 그렸다.
서양미술 400년을 단 하나의 미술관에서 경험하는 압도적
몰입감이 세대와 국적을 넘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전시가 아닌, 미술사의 여정을
압축해 선보인 타임머신과 같았습니다.” 전시 기획에 참여한
제주도립미술관 학예사의 말이다. 임페셔니즘의 선구자
모네부터 팝아트의 아이콘 앤디 워홀까지, 89명 거장의
작품 143점은 미술사책에서나 보던 명작들을 실물로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플로랜드 필립스와 폴 고갱의
후기 인상주의 작품들, 빈센트 반 고흐와 파블로 피카소,

↓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전시장 4섹션 '인상주의' 작품
관람객 모습



앙리 마티스, 살바도르 달리 등 20세기 천재들의 작품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각 시대와 작가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벽면 색상과 조명 연출은 작품 감상의 깊이를 더했다.

제주, 세계 미술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



2024년 11월 26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 이 특별전은 제주현대미술관 개관 18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시로, 누적 관람객 3만 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제주가 글로벌 예술 교류의 새로운 무대로 도약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제주도민들에게는 50% 할인된 입장료로 세계적 명작을 만날 기회를 제공했고, 관광객들에게는 자연 관광과 함께 예술적 경험을 선사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체험 행사와 네이버 VIBE 앱을 통한 오디오 도슨트 서비스 등 다양한 접근성 향상 노력이 돋보였다.

삼다찰의

쫀득한 반란



제주 바람이
생장시킨 삼다찰

찰기의 극치, 삼다찰. 제주화산토가 빚어낸 이 신품종이 오메기떡에 영혼을 불어넣는다. 쫀득함과 고소함이 허끌에서 춤추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섬의 서사에 빠져든다. 한때 제주인의 주식이었던 차조가 현대적 혁신을 통해 재탄생한 삼다찰은 태풍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20% 증가한 수확량이 특징이다. JDC와 제주도, 농단협이 손을 맞잡고 함께 건립을 추진 중인 '제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열개가 윤곽을 잡고 있는 지금, 삼다찰은 제주 식품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맛의 아이콘이 되었다.

쫀득함으로
세계를 사로잡는
오메기떡

차조로 빚어 팥고물로 마감하는 오메기떡. 제주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건네던 이 소박한 떡이 삼다찰을 만나 글로벌 미식의 새 장을 열고 있다. 쫀득하고 고소한 식감에 은은한 단맛이 어우러진 삼다찰 오메기떡은 '제주푸드앤파인페스티벌'의 주역으로 세계 셰프들의 영감까지 자극하는 제주 청정 식재료의 사절단이 되었다. 한 입에 담긴 섬의 이야기, 삼다찰 오메기떡은 미식의 섬으로 거듭나는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빚어가고 있다.

